



붉은넥타이



박 현

동녘이 불그스레 물들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었다.

까까중이머리가 덜수룩하게 자라고 몸매가 무척 웅골차보이는 아이 하나가 평양으로 가는 큰길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다.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혼련을 나간다
...

푸른 들판엔 젖빛안개가 자욱히 서리고 이슬에 젖은 길가의 뽕나무들이 싱싱한 향기속에 와스스거린다. 추근하게 녹жат아든 먼지길우에 그의 맨 발자국이 또박또박 찍혀지고 땀이 얼룩얼룩 내뻗 잔등에서 새 질신 한켠레가 걸음마다 춤추듯이 흔들거렸다.

췌췌 물소리가 들려오는 산굽이를 돌아서자 앞이 활짝 트이며 물비린내가 싱그럽게 안겨왔다. 노을빛이 물들어 불타는 강반을 굽어보며 뽕얇게 흐르는 안개에 비단필처럼 휘감기운 긴 다리가 맞은편 산밑으로 곧게 비껴있었다.

강건너 다리목에 승용차 한대가 앞뚜껑을 젖히고 섰고 바깥쪽을 든 운전사가 자갈이 깔린 강변에서 총총히 돌아선다. 새벽어둠길을 줄창 달리다가 화끈 단 기관을 식히며 물을 갈아넣는 모양이었다.

문득 영구는 시무룩해지며 노래를 똑 끊었

다. 다리어구에서 키가 후릿하신분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계시지 않는가. 아마도 어디론가 급히 가시다가 승용차에 물을 넣는 동안 험한 새벽길의 피로를 풀려고 천천히 다리를 거니시던중인것 같았다. 그이의 뒤에 유격대군복차림의 젊은 아저씨가 섰다. 자애로운 웃음 띤 그이의 눈길에 하도 찬란하고 정 어리시여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영구는 슬그머니 제면쩍어져서 걸음이 떠지였다.

(어쩔가, 얼른 지나가버릴가?)

《애, 이리 오너라.》

그가 머뭇거리는데를 보고 키가 후릿하신분이 빙그레 웃으며 손짓하셨다. 영구는 선뜻 쥐고있던 막대기를 내던지고 그이에게로 다가갔다.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 어디서 배웠니?》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단번에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

영구는 싱긋 웃었다.

《할머니가 배워주었어요.》

《할머니가... 음, 너 집이 어디냐?》

《해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이나?》

《평양으로 가요.》

《아니, 해주에서 평양까지... 그래 그 먼길을 너 혼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나?》

그이께서는 퍼그나 놀라와하며 아저씨를

돌아보기까지 하셨다.

《평양엔 왜 가느냐?》

(누구길래 이렇게 물어볼까?... 승용차까지 타는데 꽤 높은 아저씨 모양이지...)

영구는 대답을 앓고 입을 꼭 다물며 그이를 올려다보았다.

부드럽고도 자애로운 모습, 분명 어디에선가 많이 뵈듯 한 모습이다.

그이께서는 영구의 얼굴에 나타난 호기심을 알아보고 미소하며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너 이름이 뭐냐?... 음, 영구...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지?》

그러자 영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 드렸다.

《그래?... 그럼 어머니는?》

영구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이발저발 옮겨디디기만 했다. 그의 허름한 옷주체를 꼼꼼히 살피던 그이께서는 돌부리를 걸어차 피터진 엄지발가락을 보자 안색이 흐려지셨다.

《너 내내 걸었니?》

《걸기도 하고 지나가던 달구지도 얻어타어요.》

《길은 어떻게 알고서?》

영구는 그이가 차를 타고 썩- 떠나가지 않고 자기와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척 기뻐서 싱글거리며 주먹으로 코밑을 쓱 닦았다.

《한번은 고개길에서 몰래 자동차에 탔는데 차가 허튼 산골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뛰어들어서 새까만 밤에 혼자 걸어오다가 길 잃어먹고 혼났어요. 고개가 바로 옆인데 그걸 모르고 온밤 헤맸거든요.》

《저런, 큰일날뻔 했구나. 어디 발을 좀 보자.》

그이께서는 한쪽무릎을 세우고 앉으시어 먼지투성이가 된 영구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셨다. 퍼렇게 얼고 게딱지처럼 굳은 살이 박힌 발을 조심히 쓸어주던 그이께서는 왼편발바닥에 엇비듬히 가로질러간 험한 상처자리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이건 어떻게 뻘뻘거냐?》

《쇠꼬각을 밟았됐어요. 왜놈의 눈깔을

고무총으로 썩주고 도망치다가 그만... 밟았어요.》

《똥았됐니?》

《예.》

《무척 아팠겠구나.》

《아프긴 뭐... 일없어요.》

영구는 뿔내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지며 말꼬리가 약간 떨리었다. 아직은 누구도 그와 다정스레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해준이가 없었다.

그이께서는 길가의 나무꼬챙이를 집으시어 영구의 발바닥에 대더니 똑같은 길이로 꺾으시었다.

《이만하면 되겠군... 옛소. 마을에 얼른 갔다오오. 애가 수백리길을 맨발로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영구는 그이께서 어째서 나무꼬챙이를 군복차림의 아저씨에게 주셨고 아저씨가 힘있게 거수경례를 한 다음 다리를 되건너가는지 영문을 몰랐다.

《너 짚신은 왜 안 신었니?》

그이께서는 사뭇 꾸짖는듯 한 어조로 물으셨다.

《평양가서 신을래요. 이젠 거기서 신이라고 우리 옆집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삼아 준거야요.》

《평양에서 신 없으면 뭐라니, 발이 상하지 말아야지.》

《난 내내 맨발로 다녔는데요 뭐. 이제 가면서 다 꺾뜨리면 장군님한테 무얼 신고가요. 장군님께 맨발로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영구는 갑자기 《아차!》하고 다급해지며 말을 삼키었다. 그는 너무 이야기에 열중하여 열결에 《비밀》을 말해버린 것이 후회되었다. 너같은 아이를 글썩 장군님이 만나주겠느냐고 그이께서 웃으실가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얼굴을 못 들고 발부리만 내려다보았다.

자기앞에 서계시는 웬 간부아저씨로만 알고있는분이 바로 그렇게도 만나뵈고싶고 품에 안기고싶은, 그래서 몇백리 험한 길을 홀로 떠나 평양으로 찾아가고있는 그이—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영구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간밤도 꼬바기 새우신 장군님께서 로동자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려고 이 아침 서해기슭의 ××공장으로 가시는 길이라는것을 알리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웃지 않으시고 정색하여 그를 보셨다.

《오, 너 장군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의례히 그럴줄 알았다는듯 그이의 신중하면서도 반가와하는 기색이 뜻밖이어서 의아해진 영구는 제풀에 주눅이 들어 떠듬떠듬 물었다.

《아저씨 장군님 뵈온적 있나요?》

《그럼, 있구말구.》

《정말요? 어떻게요?》

《이렇게 너하고 이야기하는것처럼이지.》

영구는 가슴이 막 들먹거리지며 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럼 장군님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야! 정말 좋았겠네. 그때 장군님을 어떻게 찾아갔더랬나요? 인차 만나뵈올수 있었나요?》

《애, 장군은 네가 가면 아주 반갑게 맞아줄게다.

그런데 짚신은 신었을걸 그랬다. 장군은 구두신은 아이보다 맨발인 아이를 더 잘 만나준다더라. 그래 너 장군한테 가서 뭘하러니? 이야기를 해봐라. 나도 평양에서 사는데 힘자라는것 너를 돕지.》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길래?》

《우리 아버진 **김일성** 장군님 유격대예요. 할머니가 왜놈들 망하면 오신댔어요. 그런데 징용에 끌려나갔던 칠성이 아버지랑 순사를 때리고 도망쳤던 쇠득이 형이랑 다 왔는데 우리 아버진 안 왔어요. 그래서 장군님께 찾아가려구...》

《아버지이름이 뭐냐?》

《최석권이예요.》

《최석권?》

문득 장군님께서서는 놀라시며 영구를 보는

눈길이 몹시도 주의깊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키를 낮추시며 그의 두팔을 짝 잡으시였다.

《네가 석권동무 아들이란 말이지?》

나직이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는 떨리고계셨다.

《할머니는 편히 계시냐?》

《없어요. 동네사람들께 장군님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왜놈들이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영구는 울먹울먹해져서 할머니가 놈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채 못하였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를 아나요?》

아픈 빛이 장군님의 안색을 어렵게 하며 스쳐지나갔다. 그이께서는 영구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시고 들먹이는 잔등을 잠시 쓰다듬어주기만 하셨다.

《알지... 알구말구. 너희 아버진 왜놈들과 잘 싸운 혁명군이다. 그런데 너 그곳에 조금만 더 있지 않고 왜 떠났니. 어련히 너를 찾지 않을라구, 응. 발이 다 터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이께서는 흠 한점 묻지 않은 영구의 새 짚신을 등에서 벗겨 지그시 바라보셨다.

영구는 숨이 막힐듯 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불편이 푸들푸들 떨리고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가득채우며 치밀어올라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집없이 굶으며 떨며 거리를 헤매고, 지치고 허기져서 차거운 눈바람이 쓸어드는 다리밑에 쪼그리고 누웠을제 누가 이처럼 따뜻이 안아주었던가.

머리를 어루만져주시는 장군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영구는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이제껏 멎든 가슴에 멎치고 쌓였던 설움에 겨워 마음껏 울고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을 꺼내시여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였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나요? 우리 아버진 지금 어디 계시나요? 평양에 가면 찾나요?》

《이제 차차... 만나게 될게다. 우리 그전에 장군께 먼저 가자. 그래서 학교에서 공

부도 하고 군사놀이도 하고 모란봉이랑 구경도 하고...》

영구는 주머니에서 소중히 싸넣었던 붉은 넥타이를 꺼내었다.

《이건 **김일성** 장군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전에 근거지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 오실 때면 이걸 매준다고 했어요.》

방금 퍼지는 아침해살에 비쳐 넥타이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듯싶었다. 장군님께서 그것을 받아드시고 말없이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었다.

물결은 뽀얗게 감서린 안개속으로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듯 출렁거린다.

수정같은 맑은 물위에 금빛해살이 눈부시게 빛나며 끝없이 부서져 흐르는데 정적이 내려앉은 강반에 물소리만 썩- 썩- 높이 잔듯 들려왔다.

영구도 목이 메었다. 천장 한모퉁이에 깊이 감춘 넥타이를 꺼내볼 때마다 할머니가 스무번도 더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칼바람이 세차게 울부짖는 밀림속, 홀로 선 애어린 이깔나무앞에 피흐르는 얼굴을 들고있는 어머니.

《재봉기와 피복은 어디에 감추었어?》

왜놈 《토벌》대장이 악을 쓴다. 어머니는 입을 다문채 멀리 앞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을뿐 아무 대답도 없다.

등뒤 세겔음도 못미친 눈무지속에 재봉기와 함께 군복통구리들과 아동단원들에게 줄 붉은넥타이가 숨겨져있었다.

유격대가 왔을 때 어머니는 바람에 흔들리는 애어린 이깔나무밑에 쓰러져있었다.

감지 못한 눈동자에 푸른 하늘이 곱게 비끼고 흰구름이 고요히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새로 입단하는 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손수 넥타이를 매여주신 장군님께서 할머니를 조용히 찾으시어 등에 업힌 영구의 손에 넥타이를 쥐여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잘 간수하십시오. 해방의 날에 이 붉은넥타이를 영구의 가슴에 날려줍시다. 꼭 날려줍시다.》

얼마후 근거지가 해산되어 할머니는 영구와 함께 고향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

다리목에 새소리가 유난히 자지러진다.

장군님께서서는 물기가 어린듯 한 눈으로 영구를 내려다보며 물으시었다.

《영구야, 너 이 넥타이가 왜 붉은색인지 알지.》

그이의 목소리는 무언가 깊은 뜻을 담은 듯 다정스러우면서도 무척 진중하게 울리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이께서는 혼자말처럼 나직이 이으시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같은 아이들이나 동생들을 뒤에 두고 집을 떠나서 빼앗긴 제 나라를 찾자고 피흘리며 싸웠는지 모른다.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다. 너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지.》

그이께서는 상념이 짙어가는 눈길을 드시고 멀리 북녘을 바라보시었다.

이 순간 어려운 싸움끝에 중상을 입고 숨지며 자꾸 장군님을 찾던 영구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해방의 날을 못 보고 가는것이 한입니다. ... 후에 조국을 찾게 되면 우리 애를 키워주십시오.》 하던 마지막부탁을 지금도 듣고계시는듯싶었다.

노을빛이 수림을 붉게 물들이는 이른새벽에 최석권중대장은 《조선혁명 만세!》를 조용히 불렀다. 무겁게 머리숙인 아름드리 나무들사이로 피줄기처럼 흘러드는 노을빛은 장군님께서 영구를 안고계시는 이 아침의 동녘과 같이 붉고붉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갈마드는 추억에서 벗어나기 어려우신듯 영구의 손을 아프도록 짝 쥐신채 오래도록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한참이 지나 군복차림의 아저씨가 운동화를 사가지고왔다.

《자, 어디 맞는가 불가.》

장군님께서서는 운동화를 받아드시더니 손수 영구에게 신겨주시고 발뒤꿈치와 앞을 꼭꼭 눌러보시었다.

《작지 않느냐?》

《꼭맞아요.》

대답올리는 영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펴고 피어있었다.

헌 짚신도 차레지지 않아 진창길에 부풀고 눈구멍이속에서 툭툭거리던 발, 벌건 피고름이 끼여 뼈속까지 쭈시던 자기 발에 신겨있는 새 운동화... 정말 이처럼 다심스레 보살펴주는 이분은 누구일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분도 계실가.

《울지 말아. 혁명군의 아들도 우나.》

장군님께서서는 영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넥타이를 매여주시었다.

가슴까지도 붉게 물들이는듯 넥타이가 그이의 손길따라 날리어질 때 영구의 눈앞엔 언제면 이것을 땀가고 입버릇처럼 뇌이던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들모두가 여기에 서서 영구가 자랑스레 넥타이를 날리고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영구야, 너 이제 크면 무엇을 하겠니?》

영구는 눈물을 닦고 긴장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겁모르고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만 하는 고향거리 조무래기부대 대장의 의젓하고 확신성있는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같은 사람이 될래요. 나도 혁명군이 될래요.》

《그래, 네 생각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꼭 아버지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나라를 제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 네가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것을 알면 모두 부러워할거다.》

영구는 《예.》하고 힘있게 대답하려 했으나 목이 꼭 잠기여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였다. 그의 마음속 깊이깊이를 헤아리시며 말씀보다 더 큰 사연을 이야기하는듯 간곡하신 그이의 눈빛이 가슴을 쿡 찔렀던것이다.

옆에 섰던 부관이 다시금 시간을 아뢰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못내 아쉬워하며 영구의 옷모양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군복차림의 아저씨에게 말씀하시였다.

《이제 애를 데리고 평양으로 올라가오. 마을에 가서 기차를 타시오. ... 돌아오는 길에 태워서 같이 가고도싶지만 어린 마음에

그때까지 기다려내겠소?》

《알았습니다.》

《올라가면 목욕시키고 머리도 깎고 새 옷을 갈아입히오. 먼길에 피로했겠는데 꼭 쉬우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먼저 의사를 데려다가 발을 보이는데 좋겠소. 상처가 어지러워져서 덧날수 있거던. 꼭 그렇게 하시오. ... 영구야, 평양가서 다시 만나자!》

영구는 자꾸 눈물이 솟아 그이의 말씀에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차가 발동을 걸었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오르지 않고 우뚝 서시여 군복차림의 아저씨와 같이 걷는 영구를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환하신 존안에서는 차차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지고계셨다.

다리를 건너 영구는 뒤돌아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뒤집지도 서시여 그를 보고계시다가 어서 떠나라고 손을 저으셨다. 영구는 가슴이 왈칫 끊으며 멈칫 서 버리였다.

와락 돌아서 그이께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장군님의 바쁘신 길을 넘려하는 군복차림의 아저씨가 조심히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제야 장군님께서서는 하는수없으신듯 웃으시며 손을 머리우에 크게 한번 들어보이시고는 차에 오르셨다. 차는 먼지를 말아올리며 미끄러지듯 다리목을 떠났다. 영구는 멀어지는 승용차의 뒤를 오래 바라보았다.

《저분이 누구시나요? 예?》

아저씨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차의 뒤를 잠시 눈길로 쫓았다.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예?!》

영구는 깜짝 놀랐다. 헛들은듯싶어 아저씨를 바라보았으나 그는 경건한 얼굴로 생각에 깊이 잠겨 꼼짝 않고 서있었다. 그제야 영구는 불현듯 그이를 어디서 만나뵈왔던가 생각났다.

고향거리 광장에 모셔져있던 초상화, 로동자들의 시위행렬우에 높이 떠받들려져있던 미소 지으시는 모습.

《장군님!》

목뎨 소리로 중얼거린 영구는 목청껏 그이를 부르며 두주먹을 힘껏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넥타이를 매여주시던 다리목을 지나 백양나무가 설렁이는 길굽이에 이르러서야 벌판으로 떨어진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멈춰섰다.

달음박질쳐서라도 그이를 따르고싶었다. 산을 넘든 강을 건느든 그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고싶었다. 그이가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아저씨가 얼마나 야속한지 몰랐다. 그이가 장군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자기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랐다.

넥타이는 목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얼굴에 안기기도 하며 바람에 나뭇졌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도 것처럼 붉게 타는 불길을 지퍼놓은듯싶었다.

승용차는 둔덕을 에돌아 멀리 강기슭에 다시 나타났다. 영구는 눈물을 닦고 반색하며 군복차림의 아저씨에게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방금 있던 꿈같은 일이 꿈이 아니라 정말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제게 넥타이를 매여주셨어요.》



아저씨는 생각에서 깨어나며 그를 보고 빙긋 웃었다.

《아동단에 입단할 때 나도 그이께서 매여주셨단다.》

둘은 형제처럼 나란히 섰다. 차는 먼 들판길로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 움직이고있었다.

《장군님 만나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도 깜짝 놀랄거예요... 그렇지요?》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장군님께서 영구를 보며 얼마나 하많은 사연을 더듬으며 아픈 생각에 잠겨계셨겠는가를 돌이켜보며 그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영구에게 무슨 말로 그것을 다 설명해줄수 있을 것인가. 멀지 않아 만경대언덕에 그이께서 세워주실 학원에서 자랄 때에 영구는 스스로 모든것을, 아버지의 희생도, 자기가 한생 걸어야 할 길의 깊은 의미도 그리고 이 아침 장군님의 심중에 뜨거운 사색을 담고 굵이친 사랑과 은정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었다.

소란스럽고도 벽찬 시기였다. 어둑컴컴한 구석에서는 방금 제세상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이를 갈고 동란기의 거센 물결우에 거품처럼 떠오른 어중이떠중이들이 사육에 눈이 어두워 꿍고있을 때 밝아오는 새 조선의 아침을 열어가시며 당을 창건하고 로동자, 농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일에 바쁘신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피어린 광복의 머나먼 싸움길을 헤쳐올 때부터 마음속깊이 구상하고계시던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창립을 준비하고계시었다.

아저씨와 같이 다리를 건너 끈게 뻗은 길을 걸으며 영구는 다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넥타이

...

그 노래소리는 아까보다도 더 힘차고 씩씩하게 그리고 더 뜻깊게 산천을 울리고있었다.

주체77(1988)년